

# 어린이집 실 구성에 관한 실태조사

이 지 속( 군산대 교수 )

우리나라의 어린이 보육시설은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전통적으로 집안에서 아이들을 보육하던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보육시설에 대한 필요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사회생활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워, 많은 수의 젊은 부부들은 출산을 꺼려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젊은 부부들이 느끼고 있는 출산과 양육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보육료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있고, 보육시설의 양적 보급 뿐 아니라 질적 개선을 위하여 보육시설의 평가 인증제 개선 등 제도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2010 보건복지백서에 의하면, 2010년 12월 31일 우리나라 보육시설은 38,021개소이고, 그 중 국공립시설은 5.3%, 법인시설 3.9%, 민간보육시설 38.6%, 부모협동시설 0.2% 가정보육시설 50.9%, 직장보육시설 1.1%이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수는 1,279,910명이고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전체 아동 수 대비 국공립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수는 10.8%, 법인시설 이용자 8.9%, 민간보육시설 이용자 56.5%, 부모협동시설 이용자 0.1%, 가정보육시설 이용자 22.0%, 직장시설 이용자 1.7%이다. 즉 보육시설 중 민간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의 수가 가장 많고, 이를 이용하는 아동의 수도 가장 많다. 정부는 보육시설 인프라의 공공성을 높이고, 취약지역의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민간보육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그래서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시스템 및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부모들에게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평가인증지표는 총 6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서 물리적 환경에 대한 것은 보육환경영역과 안전영역이 있다. 평가인증 지침서(보건복지부, 2010)에 의하면, 보육실을 제외한 보육시설 내 갖추어야 할 실내시설은 현관, 복도, 계단, 화장실, 세면장 등이 있다.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지침서는 39인 이하와 40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로 구분되고 있으나, 시설 규모상 40인 이상 보육시설의 시설구성이 좀 더 다양하고 논의해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조사 대상으로 하고, 호남지역 보육시설 8곳을 대상으로 현장측정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조사한 결과, 평가인증에서 제시한 실내시설은 모두 갖추어져 있으나, 그 외의 공간은 다양한 이름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보육실 외에 사무실 혹은 교무실, 교사실, 행정실, 원장실, 상담실이란 통일되지 않은 이름의 원장이나 교사들의 집무실 겸 부모와 상담 등을 하는 행정실이 있었다. 화장실은 각 보육실에 연결되어 있거나 현관근처에 있었다. 조리실 혹은 주방이란 이름으로 된 부엌공간이 있고, 실내놀이터, 피아노방, 강당, 치료실/보건실이 있으며, 교재교구실 혹은 창고 공간이 실내에 있었다. 그 외, 푸드아트리에, 북카페, 유희실 등이 있었다. 실외공간에는 실외 교구장, 실외놀이터, 모래놀이터, 옥상/비상구, 옥상놀이터, 보일러실 등이 있었다. 정원 수 대비 시설 내 각 공간의 구성비가 조사대상시설마다 다양했다. 정원 수 대비 보육실의 면적은 최소 2.42㎡, 최대 6.6㎡까지이고, 평균 3.39㎡이었다. 정원 수 대비 화장실의 면적은 0.08㎡에서 0.47㎡사이인데, 평균0.27㎡이었다. 보육실 크기나 화장실 면적이 일정한 기준없이 결정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보육실 및 화장실 면적설정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동시간에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수를 기준으로, 보육실과 화장실의 규모를 정하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